Entertainment p/18
서태지 앙코르 콘서트 개최
metro
Sports p/20
김세영, 역시 '역전의 여왕'
누구…시더라?
문재인 야당 대표론 처음으로 박정희 묘소 참배 p/3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 보수권 반발 여전
정청래 "피해자 위로가 먼저" 당내도 불협화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최희, 야구여신에서 직장인 여신으로 p/16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도 유죄 p/3,23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다음 달 11일 열리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9일 오후 부산시 기장군 대변항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해상홍보 선박 참가자들이 공명선거를 상징하는 깨끗한 바다로 돌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증세복지론에 쐐기 박은 朴

청와대 회의서 "국민 배신 행위"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 연설로 촉발된 '증세 없는 복지' 비판을 정조준해 9일 "국민배신"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며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활성화를 통한 재원 확보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경제선순환론'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김 대표는 원내지도부와 비박(비박근혜)인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리한 직후인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국민 기만 행위'라는 비판이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여당 내에서 금기시돼 온 법인세를 두고 "법인세(인상)는 이제 성역이 아니다"고 말해 증세론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져갔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은 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선출로 더욱 고조됐다. 문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취임 일성으로 박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9일에는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국민배신"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여야도 정치권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서민 지갑 지키고 복지 줄이기 막겠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새 지도부. 오른쪽부터 오영식·전병헌 최고위원, 우윤근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 주승용·유승희 최고위원.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혼신에 맞서 서민 지갑을 지키고, 복지 줄이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드 공론화 아직 멀었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9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해 "사드에 대해서는 결정이 없고 협의한 논의도 없다"며 "(언급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사드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용이라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자국 위협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한중인 블링컨 부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드는 순전히 방어적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그러나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언급)은 모두 시기상조(premature)"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만약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한국과 완전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비핵화로 되돌아가는 데 진지하다는 점과 믿을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것(대화)에 대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보일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블링컨 부장관은 조 1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북한 문제, 지역 정세, 국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간 이번 협의는 지난달 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의 방한과 7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 이은 한미 고위급 연쇄 협의다. 한·중·일 순방차 취임 후 처음으로 전날 방한한 블링컨 부장관은 10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정보라기자

"건보료 개편 백지화 발언 靑 개입 없어"

문형표 복지장관 언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발언 당시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중요하고 복지부도 그러한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 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늦춰서 가자고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문 장관은 건보료 개편 백지화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는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의 결정 사항"이라며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병형기자

법무장관 "권은희 위증혐의 철저수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9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권 의원의 위증 혐의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을 축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모해 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황 장관은 수사 상황에 대해 "필요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권 의원의 소환은) 수사 상황을 종합한 뒤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1군사령관 성폭행 상황도 묘사"

군, 녹취록 늑장 공개… 성폭행 묘사 부분 은폐했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육군 1군사령관이 수천명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의 발언은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어야 했고…"라는 발언 전후에 나왔다는 주장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9일 영등포구에 있는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당국이 일부만 공개한 녹취록의 나머지에는 1군사령관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이 들어있다"면서 "공략된 발언이 더 심각한 내용이라 편집해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육군이 최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1군사령관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육군 대령이 긴급체포된 사건 직후 열린 이 회의에서 "처음에 잘못된 것을 본인이 인지했으면… 본인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어야 했고…"라고 말했다. 이 발언 전후에 성폭행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이 있지만 육군이 이를 숨겼다는 게 임 소장의 주장이다.

임 소장은 "당시 수천명이 시청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발언이 공개됐다면 이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에 나머지 내용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임 소장은 성폭행 묘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했다"면서도 "해당 발언을 지금 이야기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므로 군 당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며 "1군사령관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부대 최고 지휘관임에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그의 거취에 대해 육군본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원석기자 yssong1@

민주화·산업화 세력 화해?

문재인, 박정희 묘역 참배…새 지도부 불참 빛 바래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화해는 가능할까. 5·16쿠데타 이후 한국사회를 양분해 온 두 진영의 진정한 화해는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는 9일 야당대표로서는 처음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했다. 문 대표는 "갈등을 이제 끝내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배를 결심했다"고 말했지만 새 지도부의 불참으로 빛이 바랬다.

이날 문 대표의 두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는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만 함께 했다.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 5명은 모두 불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승만·박정희 참배에 앞서 첫 행정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 인혁당(인민혁명당) 열사들의 묘소 참배가 더 우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판은 새정치연합을 넘어 야권 전체에서도 쏟아졌다.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온 분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면 현충원 무명용사탑과 보라매공원의 산업재해 희생자 위령탑을 참배하면 족하다"고 비판했다. 신당을 추진 중인 국민모임은 성명을 내 "역사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직 대통령의 업적 인정과 존경의 의미를 갖는 '참배'를 구분하지 못한 반역된 역사관과 민주주의 철학 부족에서 빚어진 대중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도 했다.

문 대표는 2012년 9월 대선 당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참배를 거부했다. 결국 대선 승리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은 물론이고 전태일 동상 까지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차지했다. 문 대표가 2년여만에 입장을 바꿔 참배에 나선 것은 중도층을 겨냥한 당의 외연 확장 노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중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다.

이번 참배를 문 대표가 아닌 문 전 비대위원장이 주도한 점도 문제다. 문 대표는 "문 전 비대위원장이 이미 일정을 잡아 놓았다"고 말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문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전직 대통령 참배(결정)는 신임지도부의 몫이라고 했다"고 오픈했다. 유신이 선포된 72년 대학에 입학한 문 대표는 재학시절 치열하게 박정희정권과 싸웠다. 이날 문 대표는 스스로의 앙금도 가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발언을 남겼다. 그는 "사실 저는 진정한 국민 통합이 묘역 참배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도 유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9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법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23면> /연합뉴스

북한 TV·라디오 HD방송로 완전 전환 북한이 8일 자정을 기해 TV와 라디오 방송을 모두 HD고화질로 전환했다. 사진은 북한 아나운서가 이날 오후 3시에 조선중앙TV 방송시작을 알리는 장면으로, 석판은 이 화면을 일반 HD보다 2배 선명한 화질의 풀HD로 송출했다. 풀HD 방송 송출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 /연합뉴스

탈북민 21% "죽고 싶다" 경험

탈북민 10명 중 2명은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였다.

9일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2014년 탈북민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만 15세 이상 탈북민 1만2777명(2013년 12월까지 입국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20.9%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6.8%)에 비해 크게 높은 비율이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30.7%), 신체적·정신적 질환·장애(18.2%), 외로움·고독(17.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조사에서 탈북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47만1000원으로 일반 국민의 월평균 소득 223만1000원의 66%에 불과했다.

한편 탈북민들은 결혼과 재혼에 있어서 일반 국민보다 더 개방적인 특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8.4%로 일반 국민(46.6%)보다 18.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또 '사별 또는 이혼 후 재혼할 수 있다'는 데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33.5%로 일반 국민(16.5%)보다 높았고, 결혼 후 가사분담에 대해서도 탈북민은 61.8%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답해 일반 국민(47.5%)보다 전향적이었다.

이밖에 탈북민의 69.5%는 가족과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답해 남한 전체(55.2%)보다 비율이 높았다. /정윤아기자 yoona1@

총리 해보려다 정치생명까지 '흔들'

언론사 외압 의혹에 언론단체 "이완구, 모든 공직서 물러나야"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9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총리직은 물론이고 자신의 정치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 갖가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도 어김없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차남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의혹, 건강보험료 미납 의혹에 이어 해외 소득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이 후보자 자신은 땅투기 의혹 핵심 증인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로운 의혹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삐뚤어진 언론관이 이 후보자의 최대 시련이 되고 있다.

이날 언론단체들은 언론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불러온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권위주의적인 협박과 회유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드러낸 이 후보자의 잘못된 행태와 비뚤어진 언론관을 강도 높게 규탄한다"며 "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말 한마디로 언론사 내부의 인사권까지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는 세 치 혀의 가벼움이 국민을 얼마나 분노케 하는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숨겨져 있는 진실을 겸손하게 고백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도 프레스센터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에게 "즉각 사퇴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KBS 뉴스타파로 드러난 이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토론 프로그램 패널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토론자에서 뺄 수 있다'는 등 언급한 내용 하나하나가 도대체 한국의 총리 후보자가 할 말인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방송기자연합회도 '언론을 권력의 노리개로 보는 총리 후보'라는 성명을 내고 "기자의 목숨을 자기 기분에 따라 언제든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언론을 협박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총리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언론인,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지 말고 '대오각성하는 마음'으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청윤미기자

KFX 유찰…대한항공 불참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입찰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만 참여하고 대한항공이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이달 하순 실시될 재입찰에는 대한항공도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과 에어버스D&S가 KFX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전투기(FX) 사업자인 록히드마틴과 협력관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경합이 예상된다.

방사청의 관계자는 9일 "오늘 오전 10시에 실시한 KFX 전자입찰에 KAI는 입찰 신청을 했지만 대한항공은 참여하지 않았다"며 "오늘 오후 4시 마감인 입찰제안서도 KAI만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쟁입찰에 제안서가 1곳에서만 들어오면 유찰시키고 재입찰하게 돼 있다"며 "내일부터 재공고 절차에 들어가 이달 하순에 재입찰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한항공은 KFX 사업 참여를 위해 유로파이터 제작사인 에어버스D&S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관계자는 "지난 2일 에어버스D&S와 한국형 전투기 공동 개발에 구두 합의했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KAI에 이어 대한항공도 이달 하순 KFX 사업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 제안서 평가를 통해 이르면 다음달 중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방사청의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이후에는 2~3개월 동안의 협상을 거쳐 6~7월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FX 체계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로맨틱한 '드론 프러포즈'

중국 가수 왕펑, 장쯔이에 청혼 때 사용 '화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론(무인기)이 드디어 프러포즈에도 활용되기 시작했다.

중국 인민망 등 현지 언론은 영화배우 장쯔이가 최근 남자친구인 가수 왕펑으로부터 드론을 동원한 청혼을 받고 수락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왕펑이 9.15 캐럿짜리 청혼 다이아몬드를 드론에 달린 바구니에 담아 36번째 생일을 맞은 장쯔이에게 보냈다는 설명이다.

왕펑은 이어 장쯔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우리는 기쁨과 아픔을 함께 겪었다. 당신을 평생 돌보고 싶다"며 청혼했다.

이날 눈물을 흘리며 청혼을 받아들인 장쯔이는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아이 두(I Do)'라는 글을 올렸다. /차의영기자 kmlee@

우버논란 '에어비엔비'로 번지나

LA서만 지난해 470억 수입…불법영업 지적

민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엔비(Airbnb)가 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Uber) 택시 서비스 논란과 비슷한 형태로 에어비엔비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어비엔비로 빌릴 수 있는 민박은 호텔·모텔·여관 등과 다르게 시 당국이 관리하는 숙박업소 리스트에 속해있지 않아 불법 영업이라는 지적이다.

집주인들이 단기 수익을 올리려고 아파트나 주택 등을 월세가 아닌 민박용으로 돌리고 있어 부동산 시장 왜곡도 심각한 상태다.

실제로 LA 주변에서만 집주인 4500여 명이 에어비엔비를 이용해 지난해에만 4300만 달러(약 469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주민들의 반발도 골칫거리다. 에어비엔비 이용자들이 파티 등을 열며 밤새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불법 민박영업을 사진으로 찍어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며 단속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시 당국이 민박업자들을 단속하려고 해도 민박 서비스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속하기가 만만치 않다. LAT는 "브로커들이 웹사이트에 민박업자 이름과 주소를 잠시 올려놓다가 바로 삭제하는 수법을 활용해 시 당국이 이들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기자

4월 방미 앞두고 고심 깊어진 아베, 현지 의회연설 주목

외교 성과냐 역사관 사과냐

외교 성과냐 과거사 사과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첫 일본 총리로서 주목받게 됐지만 왜곡된 역사관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르면 4월 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고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의 방미는 2013년 2월 이후 2년만으로 IS 일본인 인질 참수 사건으로 정체된 정국을 쇄신할 수 있는 성격이 짙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의 동맹과 경제협력 정책을 강조하는 외교 이벤트이기도 하다. 안보면에서는 미일 상호방위지침 개정을 통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군사적 역할 확대를 공식 승인받고, 경제면에서는 미·일 주도의 역내 경제통합을 상징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마무리 짓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베 신조 총리가 지난 2일 일본 각료 회의에 참석한 모습 /AP 연합뉴스

◆ 왜곡된 역사관 극복 숙제

다만 아베 총리가 방미 성과를 얻으려면 과거사 문제 장벽을 넘어야 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미국 유명 학술매체 맥그로힐 출판사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역사협회(AHA) 소속 학자 19명은 "어떤 정부도 역사를 검열할 권리가 없다. 일본군 위안부 숫자가 잘못됐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이 명백히 잘못됐다"며 "일본 우익 극단주의자들의 위안부 문제 진실에 관여한 언론인들과 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 성명을 냈다. 미국 국무부도 "학술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혀 아베 총리의 비뚤어진 역사 태도를 지적했다.

미국에서 일본 정부의 맥그로힐 출판사 압박 논란이 커지면서 아베 총리의 방미 모양새가 퇴색할 가능성도 커졌다. 아베 총리가 왜곡된 역사관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미국이 가장 신성시하는 가치 중 하나인 학술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시선이 아베 총리의 방미 행보에 더욱 주목하게 됐다.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4월 방미 시 역사관 문제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정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슈퍼스타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8일(현지시간) 미사 집전을 위해 찾은 이탈리아 로마 교외 성당으로 가던 중 외곽 빈민 마을로 난민촌을 찾아 이웃 거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신한·KB금융, 실적 순항 이어갈까

각각 행장 부재 리스크·LIG손보 인수 난항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나란히 지난해 실적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신한금융은 서진원 행장 부재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고 KB금융는 여전히 LIG손해보험 인수가 난항을 겪고 있어 올해 실적이 주목된다.

9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 2조81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조8986억원) 대비 9.6% 증가한 수치로 지주사 중 유일하게 당기순익 2조원대를 등극했다.

이 기간 신한은행의 당기순익도 전년 대비 6.0% 증가한 1조4552억원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8.8% 성장했고,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가계 대출부문도 7.4% 성장했다. 예수금도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

KB금융도 전년 대비 10.2% 증가한 1조4007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의 당기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9% 상승한 1조290억원이다.

건전성 지표인 총 연체율에서도 국민은행은 0.51%를 기록, 전년 대비 0.26%포인트(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2월 말 기준 전년 대비 0.22%p 하락한 0.45%를, 기업대출 연체율도 전년 대비 0.31%p 하락한 0.57%를 기록했다.

하지만 신한금융과 KB금융의 올조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연간 실적과 반대로 양사 은행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좋지 못한데다 신한은 서 행장 추임과 관련, 잠인 싸움이 진행 중이고 KB는 여전히 LIG손보와의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서 행장은 지난달 2일 출근해 시무식 이후 감기몸살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아직 건강이 나아지지 않아 5일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9~10일 그룹 경영포럼, 12~13일 일본 재일교포 주주 신년하례회 등에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신한은행은 지난달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영진 부행장을 행장 대행으로 선임했다. 3월 중순 열리는 주주총회 전까지 임 대행이 총괄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신한금융이 서 행장을 한동우 회장의 차기 한동보 낙점한 상황에서 새로운 후계구도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현재 차 회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형진 지주 부사장,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과 신한사태를 일으킨 라응찬 전 회장이나 신상훈 전 사장의 측근 간 갈등이 행장 선임과정에서 재연될 조짐이다.

KB금융의 경우 LIG손보 인수가 아직 진척을 보이지 못한 점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KB금융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하지만 최종 인수가격을 놓고 KB와 LIG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김병헌 LIG손보 사장이 12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어 자칫 인수 절차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한의 경우 타 금융사에 비해 탄탄한 승계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만 서 행장의 부재 타격은 클 수밖에 없고, KB도 LIG손보 인수건에 타결 안된 부분은 양사가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하고도 웃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의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익은 1833억5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5.28% 감소했다. 이는 전분기 보다도 57.4%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KB국민은행의 당기순익도 1479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줄었다.

/김하석기자 khs8404@metroseoul.co.kr

신제윤 금융위원장 혁신성평가 우수은행 격려 방문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은 9일 혁신성 평가에서 최우수 은행으로 선발된 신한은행의 디지털중앙금융센터를 방문해 혁신사례와 건의사항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국내 건설 공사 수주액 100조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지난해 다시 100조원대를 넘어섰다.

대한건설협회는 2014년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07조4664억원으로 전년대비 17.7%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2007년 107조3000억원을 기록한 이래 2012년까지 7년 연속 100조원을 상회했다. 하지만 오랜 건설경기 침체로 2013년 91조3069억원으로 내려 앉았다가 지난해 다시 100조원대를 회복했다.

공공부문 수주액은 40조7306억원으로 전년보다 12.6% 늘었다.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이 대형 국책사업 부재에도 불구하고 도로 철도 등 SOC 물량 발주에 힘입어 22.3% 증가했다. 공공건축은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 관련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0.6% 느는 데 그쳤다.

민간부문 수주액은 주택사업 호조세의 영향으로 55조1367억원에서 66조7361억원으로 21.0% 증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상·공업용부문의 실적도 개선되길 바란다"며 "올해 건설업계가 양적 질적으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선욱기자

건설사 해외시장서 잇따라 호평가

해외건설협회는 9일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지난해 외국 정부·발주처 등으로부터 건설과 관련 분야에서 수상한 주요 사례에 대해 조사·발표했다.

주요 수상 사례를 분석해 보면 우리 업체들이 세계 각지에서 우수한 시공관리 능력은 물론 친환경 안전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 건설청(BCA)이 주관한 BCA 건설대상에서 현장부문과 건설사 부문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997년 첫 대상 수상에 이어 지금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싱가포르에서의 명성을 이어갔다.

현대건설은 또 홍보 브로슈어가 세계적인 마케팅 조사기관이 주관한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면서 글로벌 건설사 리더로서 높은 미래 성장성을 안정받기도 했다.

쌍용건설은 텃밭인 싱가포르에서 매년 시공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건설대상을 국내 건설사 중 최다인 27회나 수상했다. 제1회 BCA 빔(BIM) 어워드 2014 에서 국내 건설업체에서 유일하게 민간부문 최고상(골드 플러스)을 받았다.

SK건설도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주관한 싱가포르 안전대상에서 최우수 안전상을 수상했다. 친환경 건설공사 안좀 스타상 부문에서도 수상자로 선정되며 호평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홍콩 싱가포르에서 안전관련상을 받은데 이어 싱가포르에서는 한국 건설사 최초로 안정대상을 4회 수상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MEED 프로젝트 품질대상'에서 3년 연속 수상했다. 플래츠 어워드 에서도 엔지니어링 부문 대상을 받으며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증했다.

롯데건설은 베트남 노동부로부터 안전우수 현장상을 받았다. 또한 중소기업으로는 다산건설엔트가 베트남 발주처로부터 도로건설 사업 수행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 건설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설사가 주요국에서 각 분야에 수상 실적을 축적하면서 발전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업적을 발판 삼아 향후 더 많은 업체에게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백선욱기자

market index (9일)

코스피	1947.89	(-8.52)
코스닥	583.75	(-10.33)
금리	1.9%	(+0.02)
환율	1095.50	(+5.30)

쓸수록 혜택 커지는 '점점카드' NH농협카드는 9일 쓰면 쓸수록 혜택이 커지는 점점(Jum Jum)카드를 출시했다. 이는 적립과 할인형 두 가지로 사용금액이 많을수록, 연속이용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특징이다. /농협카드 제공

금융개혁 릴레이 세미나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또 최근 금융회사들이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제안한 건의사항도 전면 검토키로 했다.

9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 티타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 간부회의 결과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 오는 3월까지 10차례에 걸친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와 오픈자본·빅데이터 강화, 인터넷전문은행, 서민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글로벌 역외진출 전략 등 주제로 한다.

이와 함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오두 검토하라"면서 "신속하게 검토해서 법령 개정 등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범금융 대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애로 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백아윤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공감(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9-1551

총 괄 인 책 인	남 규 표
사장·편집인	김 ○ 환
편 집 국 장	김 세 훈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11

2005년 5월 3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86)

김병호 새 하나은행장 '통합·수익성' 숙제

선임절차 하루만에 속전속결… 위기의식 때문인 듯

하나금융그룹이 통합작업 중단이라는 뜻밖의 암초에 신임 하나은행장을 선임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9일 하나금융은 이날 오전 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김병호 직무대행(54·사진)을 신임 하나은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가처분 용인 이후 불과 엿새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 하나은행장 하루만에 결정…병합 장기 표류 대비

김 행장은 이날 오후 이어진 하나은행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2년 임기의 하나은행장으로 공식 결정됐다.

은행장 선임절차가 단 하루만에 속전속결로 완료된 셈이다.

이는 하나금융의 위기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그간 하나금융은 외환은행과의 합병을 고려해 행장 선임을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하나금융은 오는 6월 말까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불확실한 금융환경과 합병의 장기 표류 가능성에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하나금융은 통합을 주도하던 이우공 하나금융 부사장 등 3명의 사표를 수리했다. 또 박성호 전무와 권길주 전무를 각각 전략담당(CSO) 임원과 준법감시인에 선임하고, 곽철승 상무를 재무담당(CFO)에 맡겨 합병 추진 업무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 수익성·통합 추진 과제… 후계구도 바뀌나?

김 신임 행장은 수익성 제고와 하나·외환은행 통합작업 지원이라는 임무를 맡게 됐다.

하나금융의 지난해 4분기 그룹 지배주주 순익은 전분기 보다 81.4% 감소한 513억원을 기록,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다.

같은기간 하나은행의 당기순익(연결기준)은 8361억원을 시현했다. 이는 전년대비 21.2% 증가한 규모지만 1조원을 넘지 못하는 등 여타 은행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김 신임 행장은 직무대행 기간 중에도 온화한 성품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관행적인 회의와 보고체계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행원들과도 격의없는 토론과 소통을 통해 조직안정을 이끌어냈다"며 "그룹의 핵심 성장동력인 글로벌 분야를 한단계 더 도약시키는 동시에 원활한 양행 통합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신임 행장은 차후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하나·외환 통합은행장 자리를 놓고도 경쟁할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통합을 하게 되면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당연히 통합은행장을 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데다 통합작업이 계속 지연되면 김 행장 역시 통합은행장 후보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기자 csh0209@metroseoul.co.kr

"종금사 경쟁력 키워 수익 확대"

우리종합금융 정기화 대표이사 선임

정기화 전 우리은행 부행장(사진)이 우리종합금융 대표이사로 결정됐다.

9일 우리은행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은 지난 6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정 부행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기업어음(CP)이나 전자단기사채 등 전통적인 종금사 사업영역에서 경쟁력을 키워 수익을 확대하겠다"며 "우리은행과의 시너지를 통해 튼튼한 수익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흑자전환한 실적을 비탕으로 올해는 세자릿수 당기순이익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날했다.

1959년생인 정 신임 대표는 우리은행 전략기획팀 부장과 은행 업무지원단 상무, HR본부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우리종합금융은 작년(4~12월)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익이 53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박아름기자

IBK기업은행, 中企 근로자 자녀 장학금 4억원 전달 IBK기업은행은 9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223명을 선정해 장학금 4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IBK행복나눔재단을 통해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대상이다. /기업은행 제공

신한카드, 일하기 좋은 기업에 뽑혔다

신한카드는 9일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GPTW(Great Place To Work)가 주관하는 'Best Work Places in Asia, 2015' 시상식에서 아시아 베스트 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GPTW는 일하기 좋은 기업(GWP, Great Work Place) 모델을 개발한 로버트 레버링(Robert Levering)이 1990년 설립한 단체로, 전 세계 50개국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은 GPTW 제도를 도입한 아시아 10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뢰경영지수 측정과 직원 설문 조사, 기업문화 공적서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총 60개 기업이 선정됐다.

국내에서는 신한카드와 신한은행을 포함해 11개사가 선정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조직 내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직원 상호간, 직원과 회사간 신뢰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기자

100th SPECIAL EPISODE

용감한 NEWS

충격!

특종 기자회견

용감한 기자들

100회 특집! 25일 수요일 밤 11시 E채널

EVENT 〈용감한 기자들〉 100회 방송 중 화면에 나오는 퀴즈를 맞혀주세요.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tcast

E channel · DRAMAcube · CINEf · FOX · FOXlife · FX

한달간 팔자세… 외국인 귀환 아직은

전문가 "코스피 매력 못느껴 코스닥 대안 부각"

최근 코스닥 시장이 전성기를 맞고 있지만 '맏형' 인 코스피 시장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피가 최근 부진했던 요인으로 외국인 매도세를 빼놓을 수 없다.

1월 한 달간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1조원 가량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강한 매도세를 나타냈다.

서명찬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2월을 포함하면 외국인은 2조원 이상 순매도를 나타내 시장 반등 구간에서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업종별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업종에 대한 매도가 집중되는 모습이었다. IT 업종에만 1조원 이상의 순매도가 나타났으며 산업재와 소비재 업종 역시 순매도가 이어졌다. 반면 금융 업종과 소재,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는 순매수를 기록했다. 최근의 외국인 순매도 완화 구간 역시 소재, 에너지, 소비재에 대한 매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코스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확대되더라도 굳이 코스피 종목을 사야할 매력을 못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상국 현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와 대형주는 국제유가와 유로존의 경기침체 우려, 글로벌 경기 둔화 등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대외 불안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 코스닥과 일부 중소형주가 대안투자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코스피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유로존 유동성이 실제로 집행되는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외국인의 순매도 기조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서 연구원은 "유가와 그리스 이슈 등 시장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새로운 추세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수급 역시 단기적인 판단 보다는 밸류에이션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세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가계 소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미국 경제의 70%를 지지하는 가계 소비는 소득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 가계 소득 증가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 확대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코스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며 코스피 1970포인트 이하에서는 주식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ETF' 거래하고 상품권 받고

KDB대우증권은 9일 'TIGER ETF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연계해 실시하는 이벤트다. KDB대우증권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서 TIGER ETF를 거래하는 고객 선착순 1000명은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1등 한 명, 2등 두 명, 3등 티셋 명에게 각각 200만원, 50만원, 3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주는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노용우 대우증권 연금사업추진부 부사장은 "증권사 중 KDB대우증권만이 IRP계좌에서 ETF 거래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희기자

원-달러 환율 1100원대 '바짝'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원 가까이 올라 달러당 1100원대에 바짝 다가선 9일 오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15% 감소

국내 30대 그룹이 올해 낼 법인세 비용이 작년보다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과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주요 30대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2014회계연도 법인세 비용은 1조2577억원으로 추정 집계됐다.

이는 공기업과 금융회사를 제외한 것으로 전년 보다 15.4% 감소한 규모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은 4조4806억원으로 전년보다 43.2% 급감할 것으로 감소 예상액이 30개 기업 가운데 가장 컸다.

현대차는 2조7032억원에서 2조3018억원으로 14.8% 줄고 기아차 역시 1조115억원에서 8227억원으로 18.7% 떨어졌다.

SK이노베이션과 삼성중공업, 효성도 전년 대비 각각 86.2%, 77.3%, 64.2% 급감했다.

이밖에 삼성물산, LG디스플레이, LG화학, 현대글로비스, 이마트 등도 법인세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S-Oil, KT, SK네트웍스, 두산, 두산중공업 등은 세전이익 적자전환 등을 이유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30대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1092조6112억원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6조5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5% 줄었다. 순이익도 49조4537억원으로 18.6% 감소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매출까지 감소했다"며 "그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돼 세전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가 감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보라기자

'정치 테마주' 득과 실

최근 정세에 맞춰 움직이는 '정치 테마주'가 부각되고 있다.

단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변동성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다는 소식에 '문재인 테마주'가 급등했다.

9일 문재인 테마주 중 하나인 위노바는 전일 대비 14.87% 상승한 1035원에 장을 마쳤다.

위노바는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머리동증 수술을 집도했던 우리들의료재단 이사장의 아들 이승열씨가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회사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김수경 회장이 재임한 우리들제약은 장 중 2%대의 상승세를 보였다.

승승장구하는 문재인 테마주와 달리 '이완구 테마주'는 고전을 겪었다.

이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후보자질 논란으로 입지가 위태롭자 테마주의 주가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이완구 테마주로 불리는 신성에프에이는 이날 14.89% 하락한 2200원을 기록했다.

신성에프에이는 이완근 신성그룹 회장이 이 원내대표와 성균관대 동문에 친척인 이유로 테마주로 묶여 있다.

또 이 원내대표와 양정고 동문인 송하경 대표이사가 재임한 모나미 역시 전일 대비 4.19% 하락한 3645원에 마쳤다.

신성에프에이와 모나미는 이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후보로 대정된 직후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이처럼 정치 테마주는 정세 흐름에 따라 급등락을 오간다.

투자자들이 정치 이슈에 기반해 투자를 결정하다보니 주가 변동성이 클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테마주의 급등세로 단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득'이 있지만 거품이 꺼지면 손실을 입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 테마주는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라며 "정세가 변하면 급락에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 기업 펀더멘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보라기자 sun@

"버티는 현대重 직원 책상도 치웠다"

사무직 희망퇴직 사실상 강제퇴출 주장…노조 "부당한 처우 소송 불사"

현대중공업에 단행된 사무직 과장급 이상 대규모 희망퇴직이 사실상 강제퇴출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자 중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남아 버티는 직원은 고정 연장근로 배제와 사내망 접속 차단을 당하고 책상까지 치워 버려 강제퇴출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중공업 사무직노조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메트로신문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우남용 현대중공업 사무직노조위원장은 이 같은 뜻을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전했다.

우 위원장은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중단과 즉각적인 인정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사무일반직과 생산직을 동등히 4급 이상의 직급을 달면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고정연장노동수당을 기준표에 의거해 지급해왔다"며 "그런데 지난 1월 회사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한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과정과 면담을 거치면서 퇴직 불응 시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넘게 지급받아 온 고정연장수당을 갑자기 중단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동료들은 지금도 18시 이후까지 근무를 하는데 유독 시간통제를 해서 17시에 퇴근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우기에 일방적인 근무시간 조정 중지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합당한 이행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회사가 유지해왔던 신뢰관계를 먼저 생각해 부득이하게 일어날 소지가 있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것이니 부디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현대중공업 사무직노조는 "회사가 이달 들어 희망퇴직 대상자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며 "일부 조합원의 컴퓨터와 전화기를 없애거나 사내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는 등 퇴직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자 A씨는 "오늘 아침 출근해 보니 자리에 있던 컴퓨터와 전화기를 사측이 빼버려 빈 책상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고 전했다.

사내망 접속 차단과 고정 연장근로 배제에 이어 자리까지 치우면서 회사가 부당한 처우를 통해 강제퇴직의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인력 효율화 작업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고 잔류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전산망 차단은 그 중에서 일부 인원에 대해 부분적으로 단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고 해명했다.

현대중공업 권오갑 사장에게 우남용 사무직노조위원장이 보낸 문건. /현대중공업 사무직노조 제공

/이정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LG 코드제로 무선싸이킹 체험단 모집

LG전자는 무선청소기 'LG 코드제로' 풀라인업 완성을 기념해 무선 진공청소기 '무선싸이킹'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체험단 모집은 LG전자 네이버 카페 'Life's Good'을 통해 총 2단계에 걸쳐 서바이벌 형태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15일까지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LG전자 무선청소기 통합 브랜드의 이름을 묻는 퀴즈를 풀고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LG전자는 정답자 중 100명은 추첨해 던킨도너츠 기프티콘과 함께 제품 체험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100명은 오는 17일부터 3월8일까지 코드제로 서바이벌 체험단 게시판에 'LG 무선싸이킹이 특별한 이유'를 주제로 글을 남기면 2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 LG전자는 이중 최우수 참가자 3명을 체험단으로 선정해 LG무선싸이킹(VC7401LHAQ)을 증정한다. 나머지 참가자 20명에겐 도미노 피자세트를, 77명에겐 스타벅스 카라멜 마끼아또 기프티콘을 선물할 예정이다.

한편 LG전자 무선 진공청소기 '무선싸이킹'은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스마트 인버터 모터를 탑재해 일반 모터 대비 31% 적은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18% 더 많은 힘을 발휘한다. 모터 수명 역시 일반 모터보다 650시간 정도 더 길며 보증 기간은 10년이다.

/정혜인기자 [illegible]

2015 도요타 기술 경진대회 서울 성수동 토요타 트레이닝 센터에서 '2015 도요타 기술 경진대회'에 참가한 일반정비 부문 대회에서 엔지니어들이 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일반정비와 서비스 어드바이저 등 2개 부문에서 전국 9개 토요타 딜러를 대표한 16명의 선수들이 경합을 벌였다. 대회 부문별 1등 2명은 10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토요타자동차 세계 고객 서비스 챔피언십'에 참가한다. /도요타 제공

중국발 수출 증가…한국 철강산업 '빨간불'

국내 철강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 중국 절반

올해도 중국의 철강 생산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 3월 철강업계 구조조정에 돌입한 중국 정부의 시도가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후퇴하는 모양새다. 중국발 수출 증가로 우리 철강 업계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현재 2037개의 철강 증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의 철강 생산량 증가를 우려했다. 2014년 기준 중국의 조강 생산능력은 연간 11억6000만t에 달한다. 세계 생산의 49.4%를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이다.

중국은 성장률이 8%대에서 7%대로 낮아지며 철강재 수요가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해 중국내 철강 수요는 4% 감소한 7억4000만t에 그쳤다. 철강제품 수입량 역시 115만t으로 14.7% 줄었다.

중국내 수요 부진으로 인해 수출은 꾸준히 증가 중이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중국의 철강제품 수출량은 지난달 1029만t으로 13개월 연속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다량이 한국으로 유입된다.

한국철강협회가 발표한 '2014 철강 수입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대중 철강제품 수입량이 1340만t으로 전년대비 34.9%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철강 수입량의 58.1%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 우위와 고품질 제품을 통해 중국산 철강재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술 개발 시도도 중국에 뒤처진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보면 중국 철강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2009년 1.2%에서 2012년 1.54%로 상승했다. 반면 국내 철강산업의 201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0.75%에 불과하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2008년 이후 철강 산업에서 한국은 저부가가치 품목에서, 중국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성장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포스코 등 국내 국내 철강기업의 성장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신한금융투자 홍진주 연구위원은 "이번 분기 중국 철강의 가격 급락과 수출 증가를 반영하면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며 포스코의 목표주가를 32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장소리기자 10sound@

한상범 LGD 사장 협력사 동반성장 다짐

물품 대금 5000억 조기 지급

LG디스플레이가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협력사들과 동반성장을 다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기며 빠른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9일 경기도 곤지암 리조트에서 한상범 사장,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사업부장 여상덕 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국내외 100여개 협력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동반성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LG디스플레이는 '시장선도 실행의 다짐'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관점, 자가주도, 강한 열정 등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가 함께 갖춰야 할 3가지 행동 원칙을 발표했다.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며 시장 선도에 앞장선 동양강철, 신성에프에이 등 총 8개 협력사에 베스트 서플라이어 어워드(Best Supplier Award)를 수여했다.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물품 대금 5000억원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양성운기자 ysw@

<25나노 8Gb LPDDR4>

SK 하이닉스-삼성 고용량 모바일 메모리 품질 논란

SK하이닉스 "상용화 제품 G플렉스2 뿐" vs 삼성 "프리미엄 제품 탑재 무리"

SK하이닉스가 개발한 고용량 모바일 메모리를 두고 삼성이 비슷한 시기에 개발한 제품과 비교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SK하이닉스는 25나노 8Gb LPDDR4를 업계 최초로 최신 스마트폰(LG전자 G플렉스2)에 탑재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자체 개발한 '8Gb LPDDR4'를 최신 출시된 스마트폰에서 업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품은 초고속 저전력 특성을 갖춘 고성능의 고용량 모바일 메모리 솔루션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기술은 2013년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비슷한 시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제품 개발을 통해 현재 20나노 D램(PC·모바일·서버용)을 양산중이다. 업계 최초로 20나노 D램을 출시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2~3위 업체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25나노 8Gb LPDDR4를 상용화 제품에 적용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프리미엄 제품에 탑재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 적용한 25나노 8Gb LPDDR4

삼성전자 관계자는 "25나노보다 성능이 뛰어난 20나노 제품이 개발됐다. 고속으로 가동될 경우 급격한 성능 저하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 프리미엄 제품에 탑재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현재 20나노 제품의 경우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조 업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20나노 D램은 경쟁사 주력 제품인 25나노 D램보다 소비전력은 25% 줄였고, 생산성은 30% 가량 증가하는 효과도 있다. 생산성은 높은데다 소비전력은 적게 들어 배터리 소비에 민감한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이 특히 20나노를 반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SK하이닉스 측은 "삼성과 동시에 발표한 건 인정하지만 해당 부품을 소비자에게 상용해 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은 G플렉스2뿐"이라며 "다른 제품과 성능을 비교할 수 없어 단순히 20나노, 25나노 제품으로 성능을 결정 짓는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표준화기구(JEDEC) 표준 규격에 맞췄기 때문에 제품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의 25나노 8Gb LPDDR4가 업계 예상과 달리 스마트폰 업계에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선준기자 yuwill@metroseoul.co.kr

삼성 노트북 신제품에 인체공학 키보드 적용

삼성전자가 노트북 사용시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키보드를 신제품에 확대 적용한다.

삼성전자는 2015년 출시한 노트북 신제품에 미국 안전규격 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로부터 성능 검증(Certificate of Validation)을 취득한 인체공학적 키보드를 탑재했다고 9일 밝혔다.

UL 성능 검증을 받은 인체공학적 키보드는 지난해 삼성 노트북 중 일부 프리미엄 제품에만 탑재됐으나 올해부터 노트북9 2015 에디션 등 신제품 7종 전체에 확대 적용됐다.

UL은 세계 최고 권위의 안전규격 개발·인증기관. 삼성전자 노트북 키보드를 대상으로 키가 눌리는 깊이, 키와 키 사이 간격 등을 종합 평가해 검증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했다.

키 깊이와 간격은 키 감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최적의 깊이와 간격을 구현해야 타이핑할 때 보다 편안하고 피로감도 최소화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노트북9 2015 에디션, 노트북5, 노트북3 등 신제품 5종에는 곡선형 키캡도 적용해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0년 연속 국내 노트북 판매 1위를 달성한 삼성전자는 인체공학적 키보드와 같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제품에 반영하고 사용자 중심의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윤부근 삼성전자 대표, 중동에 혁신 DNA 전파

윤부근 삼성전자 대표가 중동에서 삼성전자의 혁신 DNA를 전파했다.

삼성전자는 윤 대표가 9일 두바이 메디나 쥬메이라 호텔에서 열린 '거번먼트 서밋(The Government Summit) 2015'에서 삼성전자의 혁신을 주제로 연설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세계 유수기업과 정부기관의 선은지식과 선진사례를 공유하는 아랍지역의 권위 있는 회의로 올해 3회째를 맞았다. 윤 대표는 국내 업계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처음 연설자로 초청돼 3000여명의 아랍지역 정부관계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났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한국과 아랍의 역사 속 인연과 문화의 유사성을 소개하는 것으로 서두를 열었다. 이어 도전과 혁신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삼성과 아랍의 공통점을 제시하며 공감대를 높였다.

특히 윤 대표는 사물인터넷(IoT)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와 국가를 바꿀 '무한한 가능성의 원천'이라고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 간 협력은 물론 정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도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두바이의 상상력과 혁신 의지에 많은 영감과 자극을 받았다"며 "아랍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혁신의 경험과 비전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스템에어컨 등 기업 간 거래(B2B) 사업과 미래 성장동력인 IoT 사업을 3억7000만 인구의 아랍 시장에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정혜인기자

LG전자, '웹OS' 탑재 상업용 디스플레이 선봬

다양한 솔루션으로 B2B 시장 공략 강화

LG전자는 10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에 참여해 자체 플랫폼인 '웹OS'를 탑재한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LG전자의 웹OS 디지털 사이니지는 휴대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연동에 사용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메뉴·가격·영양 정보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Wi-Fi) 연결도 가능하다.

웹OS 호텔TV는 쉽고 편리한 UI(User Interface)를 통해 호텔 소개, 주변 명소, 엔터테인먼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 TV를 통해 조명, 냉난방 기기, 커튼 등을 제어할 수 있다.

LG전자 모델이 ISE 2015 전시장에서 웹OS 사이니지를 체험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이와 함께 투명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LG 투명 쿨러 도어도 선보인다. 투명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 식음료 판매점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거울과 터치스크린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미러 디스플레이도 선보인다. 미러 디스플레이는 매장에서 평소에는 거울로 사용하다가 고객이 옷 입어보기(Virtual Fitting) 기능을 사용하면 실제 옷을 입어보지 않고도 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준다. 또 간단한 터치를 통해 옷의 색상을 바꿀 수 있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105·98·84·65형 등 다양한 크기의 울트라HD 사이니지도 내놓는다. 울트라HD 사이니지는 기존 풀HD의 4배에 달하는 해상도로 보다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전달한다.

박형세 LG전자 ID사업부장 상무는 "사용하기 편하면서도 정보전달력이 뛰어난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을 지속 선보여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hjung@

삼성전자 타이젠 탄력에 알리바바 스마트폰OS 시장 '눈독'

최근 삼성전자와 알리바바 등이 자체개발 OS 탑재와 투자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타이젠 스마트폰을 출시해 탄력을 가하고 있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정보기술 업체를 인수하는 등 관련 시장 공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에서 자체 개발한 타이젠을 탑재한 스마트폰 삼성 Z1(사진)을 출시했다. 출고가는 5700루피(한화 9만9000원)다.

인도에서 첫선을 보인 뒤 열흘만에 5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성능으로 이같은 성과를 이뤘다는 게 현지 언론의 평가다. 삼성전자는 인도에 이어 스리랑카, 네팔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타이젠폰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알리바바도 아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알리바바는 인도 정보기술 기업 원97커뮤니케이션즈의 지분 25%를 인수한데 이어 중국 저가 스마트폰 업체인 메이주에 5억9000만 달러(한화 6464억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알리바바는 이번 투자로 메이주의 일부 지분을 확보하고 자체 휴대전화 운영체제 YunOS를 메이주의 스마트폰에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애플도 인도시장 확대를 계획 중이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도 인도시장 공략을 시작했다. 샤오미는 인도 6대 도시 에어텔 매장에서 레드미노트 4G를 판매해 재미를 보고 있다.

/유선준기자 yusunjun@

숨막히는 100분! 강력해진 캐릭터!
두 배우의 연기 전쟁이 시작된다!!

스릴러의 외피를 두른 심리 드라마

2015 Ver.

도둑맞은 책

The Purloined Book

박호산 | 이현철 | 김강현 | 김철진

삼성 스마트 TV, 사생활 침해 했나

미국서 음성인식 기능 사생활 보호 정책 논란
삼성 "단순 주의 문구… 제3자 판매 말도 안돼"

삼성전자의 스마트 TV 사생활 보호 정책 약관이 미국에서 본래 의도와 달리 '도청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된 약관은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사적이고 민감한 대화 내용을 저장해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랍니다"라는 부분이다. 삼성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정책 페이지 내 스마트TV 부록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제품의 음성인식 기능을 켜놓을 경우 사용자의 음성이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이 약관은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의 활동가인 파커 히긴스의 트위터에 캡처가 공개돼 1만번 이상 리트윗 될 정도로 사용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샘보바일, 테크크런치 더버지 등 미국 IT매체에서도 잇따라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약관은 거실에서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사용자 모르게 어딘가로 전송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일부 매체에서는 '빅 브라더'와 '도청' 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성인식 기능은 사용자가 말하는 내용을 문자화해 통합 서버에서 검색하는 과정을 거친다. 삼성전자 측은 음성인식 엔진이 계속 업데이트 되기 위해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집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성전자 모델이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타이젠 OS가 탑재된 삼성 스마트 TV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스마트TV의 음성인식 기능은 계속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 진화한다"며 "이를 위해 음성 명령을 저장해 사용하며 사용 후엔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TV 화면에 표시하고 사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뜻의 문구를 넣은 것"이라며 "실제로 수집된 정보가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제공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끌 수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용자는 이런 사생활 보호 정책 약관을 자세히 읽지 않은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또 기능에 대한 숙지 없이 조기 구입 당시의 기본 설정을 바꾸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라 소비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LG전자 스마트TV도 2013년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TV는 보통 거실에서 모든 가전의 중심에 위치하는 만큼 스마트홈의 허브로서 모든 개인정보가 모이고 저장되는 중추로 각광받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 같은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혜인기자 hjung0404@metroseoul.co.kr

현대 상용차, 특별 점검 서비스

현대차 상용차를 서비스센터에서 점검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상용차(버스 및 트럭) 고객을 대상으로 상용차의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로 직접 찾아가 차량을 점검하는 '찾아가는 비포서비스'를 펼친다. 유로6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한 신 차종들에 대한 특화 서비스도 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는 오는 12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탄진 화물휴게소에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협력업체들과 함께 750㎡(약 227평) 규모의 특별 점검 서비스 부스(Booth)를 마련한다. 이곳에서 ▲각종 오일, 퓨즈, 램프 등 소모성 부품 교체와 충전 ▲차량 성능 유지를 위한 점검비 ▲특장차 장비 점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지비 절감을 위한 가기점비 관련 설명은 물론 ▲금대권 상용차 고객들에게 특화된 금융 프로그램 관련 상담 ▲고객 참여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비포서비스에서는 야간·장거리 운전이 많은 상용차 고객에게 무료 건강 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한 현대차는 올해 1월부터 국내에도 적용되고 있는 유로6 배출가스 규제에 맞춰 친환경 첨단 기술이 적용하는 유니버스 등 새로운 엔진을 적용한 등 차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모든 상용차 라인업을 유로6 기준에 맞춰 새로이 출시할 예정이다.

/김종훈기자 fun@

카논 상반기 신제품 한자리에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캐논 2015년 상반기 신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아시아나항공, 일본인 대상 체험상품 개발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은 9일 서울 중구 필동 한국의 집에서 '서울 구루메 기행' 런칭 행사를 열었다.

'서울 구루메 기행'은 일본 관광객을 위한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즐기는 서울여행" 컨셉트의 여행상품이다.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일정에 전통 궁중음식 체험, 서울 근대문화 탐방, 고궁투어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행사에는 아시아나항공 송석원 여객마케팅부문 상무와 한국방문위원회 한경아 사무국장, 구루메 상품을 이용해 방한한 나고야 지역의 일본인 관광객 30여명이 참석해 궁중한정식 오찬과 기념품 전달 등의 환영행사를 열었다.

아시아나항공 – VKC '서울 구루메기행'
アシアナ航空 – VKC ソウルグルメ紀行 訪韓歓迎行事

송석원 아시아나항공 여객마케팅부문 상무(왼쪽 세 번째)와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왼쪽 네 번째)이 일본인 관광객과 9일 서울 필동 '한국의 집'에서 구루메기행 런칭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시아나 제공

송 상무는 "연간 6만여 명의 일본인 관광객이 서울 구루메 기행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본 관광객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2년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식과 전통주 체험, 국내 주요 관광지 여행을 포함한 '대장금 투어'를 비롯해 중국인 관광객에게 '정보기술(IT) 투어', '삼성일렉스 투어' 등을 선보인 바 있다.

구루메 상품 판매를 일본 전 지역으로 확대해 3월과 4월에도 환영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용기자 lsy@

LG유플러스, 설 앞두고 협력사에 140억 조기집행

LG U+가 중소협력사에 약 140억원의 납품 대금을 설 연휴 전에 현금으로 조기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LG U+ 측은 "이는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중소협력사에 도움이 되고자 결정된 것"이라며 "납품 대금을 앞당겨 받을 협력사들은 무선중계기 제조업계, 유선 네트워크장비 제조업계, 네트워크 공사업계, 정보기술(IT) 개발 및 운영 업계 등 총 480여곳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LG U+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모든 중소협력사에 대한 어음 발행을 100% 현금 지급으로 전환했다. 대금지급 기일도 10일 이내로 단축시키는 등 결제 조건을 개선하여 협력 업체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업은행과 연계하여 조성한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해 LG U+의 협력업체들은 저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유선준기자 rsunjun@

홈플러스 불매운동… 도성환 사퇴설 '솔솔'

언이은 악재에 창사 이래 최대 위기… 10개 소비자단체 사과·피해보상 촉구

소비자단체들이 홈플러스 불매운동에 들어갔다.

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는 최근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조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불매운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불매운동 선포식'을 열고 "불매운동은 고객의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하는 비윤리적인 홈플러스의 행위에 대해 소비자 스스로가 우리의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우사 안일한 대응 태도를 규탄하며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영등포점을 시작으로 전국 홈플러스 지점에서 불매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 단체는 전국주부교실중앙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한국YWCA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YMCA전국연맹·한국소비자교육원·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생활연구원·녹색소비자연대·한국부인회총본부 등이다.

홈플러스는 반복되는 경품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외에도 자체 브랜드 제품 부실과 노사 문제 등 하루가 멀다하고 악재가 언이어 터지면서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의 사퇴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도 사장은 2013년 5월 이승한 회장에게 대표이사직을 물려받았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검찰 수사 선상에까지 오르며 영국 테스코 본사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으로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여러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겨 231억7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도성환 사장을 포함한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 6명과 회원정보

를 제공받은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성환(사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품 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홈플러스 회원카드 가입 등의 방식으로 얻은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넘긴 고객 개인 정보는 건당 1980원에서 2800원에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직원 윤리 교육 강화와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 강화 등을 약속하고 공식 사과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홈플러스의 기업윤리 '착한 기업'은 우쑥해져 이미지 실추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세아기자 henrt0813@metroseoul.co.kr

"명인이 만든 토속식품 선물하세요" 현대백화점이 2015년 설을 맞아 9일 전국 13개 점포에서 '명인명촌'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명인명촌은 현대백화점에서 국내 지역 명인들이 직접 손수 만들고 있는 토속식품을 소개하는 독특 브랜드다. '명인명촌' 선물세트는 발효 및 숙성을 거쳐 만든 벡가스의 발효식초·효소, 기름, 소금, 젓갈, 차어피 등 150개 품목 제작품로 구성됐다. /현대백화점 제공

"요우커가 몰려온다"

유통가, 中 춘절 특수 '총력'… 문화마케팅까지

오는 18일 시작되는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春節)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중국 관광객(요우커) 잡기에 나섰다. 한국관광공사는 이 기간 중국 관광객이 12만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4일 본점·잠실·부산본점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중국인 고객 1명을 선정해 2000만원 상당의 1.5캐럿 다이아몬드 팔찌를 증정한다. 아울러 본점에선 오는 13~24일 '100% 당첨 홍빠오 복권' 행사를 열어 총 8888명에게 복권 당첨 여부에 따라 밥솥·인형·담요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점포별로 구매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연다.

신세계백화점은 20~21일 본점 문화홀에서 태권도 등 동양무술과 아크로바틱 동작이 어우러진 넌버벌 뮤지컬 '점프'를 선보인다. 이 기간 포토존을 설치해 중국인들에게 판다 30여마리와 함께 사진찍을 기회를 제공하고, 판다들이 명동 일대를 누비는 '판다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중국인 고객에게 현대백화점 입점 브랜드와 할인 행사를 소개하는 우편광고(DM) 5000부를 발송했다. 또 은련카드로 구매하는 중국인에게 상시 제공하는 5% 할인 혜택과 더불어 현대백화점와 외국인 카드인 'K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구매금액의 5%를 상품권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마리오아울렛은 24일까지 대규모 춘절 마케팅을 진행한다. 텍스리펀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중국 쇼핑객에게 '홍빠오(紅包)'에 마스크팩과 핫팩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 30만원 이상 구매 텍스리펀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국 고객에게 한국 전통 수저세트를 증정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성과급이 축소되고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세금 납부까지 이어지면서 연초 내수 소비심리는 점점 얼어붙어 유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이러한 국내 쇼핑 악재에도 요우커 매출은 매년 신장하고 있다. 이제는 '제2의 내수'로 불릴 만큼 내수부진을 타개할 중요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판다 퍼레이드. /신세계백화점 제공

안전 직접 챙기는 신동빈 회장

제2롯데월드 불시 방문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9일 오후 롯데월드타워&몰 현장을 예정 없이 방문해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입점 업체 직원들을 위로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이날 안전 상황실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종합방재실에 들러 안전사고 발생 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현재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영화관과 아쿠아리움도 방문해 재개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보수와 관리를 주문했다.

신 회장은 롯데월드몰 입점업체들을 방문해 "수수료 감면과 적극적인 마케팅 시행 등 입점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롯데월드타워도 점검했다. 97층 공사현장을 찾은 신 회장은 근로자들에게 "한국의 랜드마크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롯데는 타워 완공 시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이름을 1층 로비에 새겨 이들의 노력을 기억할 계획이다.

점검을 마친 후 신 회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롯데월드몰의 모든 시설을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조금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김보라기자

상하이 식품무역유한공사 난쓰길 대표. /설빙 제공

디저트 카페 설빙, 중국 진출

한국식 디저트 카페 설빙은 올해 중국 상하이에 진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빙은 지난 6일 중국 상해아빙식품무역유한공사와 상하이 지역 마스터 프랜차이즈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4월 상하이 지역에서 매장 2개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상하이에 총 150개 매장을 열기로 했다.

설빙은 상하이를 시작으로 광동성·장수성·지린성 등 중국 각지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가계약이 완료돼 올해 동남아시아에도 진출하게 됐다고 설빙 측은 설명했다.

아웃도어 봄 신상 싸게~

아웃도어 업계가 설 특수 맞이에 한창이다.

업계는 다양한 이벤트로 수요를 끌어올리는 한편 할인전에 봄 신상품도 내걸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블랙야크는 이달 22일까지 50만원 이상 구매한 블랙야크 그린카드 회원을 추첨해 2명에게 항공권과 숙박권이 포함된 홍콩 트레킹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또 다른 2명에게는 방콕 반얀트리 호텔 숙박권을 증정한다.

엠리밋은 오는 28일까지 '엠버십 회원카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벌인다. 이벤트 기간 엠포인트 카드 기존 고객과 신규 가입자에게 2만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포인트는 1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사용 가능하다.

제품 할인 역시 설 이벤트에 단골로 등장한다. 재고 소진은 물론 봄 신상품 중 주력 상품을 먼저 선보여 홍보하는 업체도 있다.

밀레는 이달 24일까지 '오케르 재킷'을 기존가에서 30% 할인된 8만4700원에 판매한다. 초봄 산행을 준비하는 등산객이 늘고 있어 초경량 윈드 재킷으로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밀레 측은 밝혔다.

또 레드페이스는 봄 신상품을 설 할인 품목으로 내놓았다. 하이킹 엔트란트 재킷, 네오 엔트란트 우먼 재킷 등 봄 재킷과 미타 스마트 팬츠, 란지 스마트 우먼 팬츠 등의 기능성팬츠를 비롯해 다양한 아웃도어 의류를 22일까지 할인한다.

블랙야크도 봄 여름 시즌 주력 상품인 'D스퍼트 재킷'을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업계 관계자는 "봄 여름 시즌을 앞두고 있는 명절인 만큼 놓칠 수 없어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월 상품들은 이미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황이고 미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신상품을 할인 품목으로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프리미엄 냉동반찬시장 '쑥'

작년 1200억원 규모… 맛·품질 앞세운 제품 인기

떡갈비나 너비아니, 동그랑땡 등을 중심으로 한 냉동 한식반찬 시장에 '프리미엄' 열풍이 불고 있다. '냉동식품은 값싸고 품질이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한식 전문점 수준의 맛과 품질을 앞세운 프리미엄 제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9일 링크아이즈에 따르면 냉동 한식반찬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1200억원 규모다. 특히 갈비류와 너비아니류, 동그랑땡, 완자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프리미엄 제품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5%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CJ제일제당과 일부 업체만이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하며 성장을 이끌고 있고, 향후 경쟁업체들까지 뛰어들 경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리미엄 냉동 한식반찬의 인기에

에 CJ제일제당이 지난 2013년 8월에 첫선을 보인 비비고 한식반찬(사진)은 출시 첫해 매출 5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280억원을 달성하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1월까지 누적판매량은 538만개로, 대한민국 총 가구수가 약 1800만 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3가구 당 1가구가 이 제품을 구매한 셈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재료를 크게 썰어 풍성한 식감을 제공하고,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아 건강에 신경 쓰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구킹클래스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올해 매출을 380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소비자 입맛 잡아라" 편의점 도시락의 진화

업계, 품질관리·연구개발 강화… 종류 확대도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지갑이 얇아진 직장인들이 부담없는 한 끼 식사를 찾으면서 편의점 도시락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관련 상품 강화에 나서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삼겹리이스, 소시지주먹밥 등 신개념 푸드 상품을 선보이며 구색을 강화하고 있다. '간장삼겹리이스'는 갈비 양념에 12시간 재운 고기를 직화 오븐에 구운 삼겹살 덮밥이다. '추억의 도시락'을 콘셉트로 한 '추억의소시지주먹'은 김가루를 넣은 혼합밥 위에 볶음 김치와 계란에 부친 분홍소시지를 올렸다.

GS25는 유명 연예인과 손잡고 자체제작(PB)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GS25는 퓨전요리 셰프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홍석천과 함께 개발한 '마이홍 핫칠리치킨', '마이홍 치킨데리야끼' 도시락 2종을 출시했다. 치킨을 달걀 지단이 부려진 밥에 얹어 덮밥 형태로 먹거나 반찬으로 먹으면 된다.

CU는 최근 웰빙 트렌드에 아침식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저염화 상품 '아침엔 본죽' 2종(전복버섯죽, 참치죽)을 출시했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도 제품의 신선도, 영양성분 등 품질에 대해 꼼꼼하게 따지고 차별화된 품질의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도시락을 식사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엄격한 품질 관리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며 "국내 편의점 도시락 시장은 앞으로 2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보라기자 bora5693@

설 연휴 앞두고 휴가 관련 상품 판매 급증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과 수영복 등 휴가 관련 상품 판매가 급증했다.

9일 옥션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1/9~2/8) 해외여행과 비키니·여행가방·샌들 등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 설 연휴기간 항공권은 100%, 비키니 50%, 선글라스 30%, 여행가방 50% 등의 판매 신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설 연휴는 주말까지 합치면 5일로 직장인의 경우 16~17일 월·화 휴가를 내면 최대 9일간 쉴 수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옥션 측은 분석했다.

디아지오코리아, 취약계층 여성 유방암 검진 지원

디아지오코리아(대표 조길수)는 지난 7일 울산대병원에서 울산지역 취약계층 여성 130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위험성·예방법 강좌를 갖고 유방암 검진권을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성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플랜 더블유(Plan W)'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영남 지역 주류도매업 협회와 함께 취약계층여성에 대한 유방암 검진 지원 후원 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후원금은 지역 주류 도매협회의 자선 행사 등을 통해 모금한 금액과 디아지오코리아에서 출연한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롯데리아 11~12일 치킨버거 반값 '깜짝 세일'

롯데리아가 11~12일 '리아데이'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롯데리아 리아데이는 월과 일이 같은 날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50% 할인, 1+1 등을 운영하는 깜짝 이벤트다. 지난 1월에는 1+1 행사를 진행했고, 이달에는 약 50% 수준의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롯데리아는 11일 닭가슴살 패티로 만든 치킨버거를 50% 할인한 1500원에, 12일 롯데리아 대표 장수 제품 중 하나인 데리버거를 1200원에 판매한다.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다.

막바지 스키 시즌, 피부 잡티 잡는 화장품 '눈길'

막바지 스키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스키장에서의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한 화장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스키장은 건조한 공기와 찬바람, 강한 자외선 등 피부 건강을 악화시키는 조건을 갖춘 장소다. 자외선 차단을 막기 위해 선크림을 바르고,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됐을 경우 화이트닝 제품을 활용해주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인 PA가 PA++, PA+++ 정도, 자외선 B를 차단하는 SPF는 30이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키엘 '울트라 라이트 데일리 UV 디펜스 SPF50 PA+++'(사진)는 식물에서 추출한 피부 진정효과가 좋은 보습 성분과 비타민 E가 건조한 공기와 찬바람이 부는 스키장에서도 하루 종일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고 끈적임 없이 피부에 빠르게 흡수된다. 스키를 타러 나가기 30분 전에 바르고 2~3시간마다 덧바르면 효과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

스키장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었다면 즉각적인 화이트닝 케어로 투명한 피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프리미엄 효자수 스킨케어 브랜드 에이트루의 '화이트 스노우 티 브릴리언트 에센스'는 이른 봄 막 돋아나는 찻잎의 탄노르만을 엄선한 찰계의 백자라고 불리는 '백호은침' 성분을 함유한 화이트닝 제품이다.

또 숨37 '화이트 어워드 화이트닝 스팟 에센스'는 버섯의 화이트닝 과정에서 작용하는 미백 성분인 피치야 를 함유해 피부에 있는 멜라닌이 형성되지 못하게 작용하고 기미, 잡티 등의 다크 스팟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해준다. /김수정기자

'청소년 성 건강 지킴이' 떴다

이대목동병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아름다움 주치의 사업' 협약 체결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이숙진)과 함께 10대 여성들의 성 건강 지킴이로 나섰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5일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경기여자고등학교, 숭의여자중학교 등과 '청소녀(女) 아름다움(womb) 주치의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아름다움 주치의 사업은 서울시 청소녀들의 성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의료체계와 학교를 연계해 10대 여학생을 위한 여성 건강 상담과 진료,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아름다움의 '움'은 영어(womb)로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말로 청소녀들이 자신들의 중요한 생식기 건강에 대해 올바른 정보와 관리를 통해 진정한 건강을 찾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여고와 숭의여중 학생들에게 여성 건강과 관련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진료도 실시할 계획이다.

유권 이대목동병원장은 "그동안 우리 병원은 캠페인을 통해 여성 건강 증진에 앞장서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성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기 쉬운 10대 청소년기의 여성 성 건강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은 지난해 3월부터 '여성을 행복하게 시회를 건강하게'라는 주제로 여성 건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hoo1[illegible]

동아오츠카 "오로나민C를 제2 포카리스웨트로"

동아오츠카가 드링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동아오츠카는 최근 국내 생산라인 청주공장에서 탄산드링크 '오로나민C' 발매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발매식에는 이원희 동아오츠카 대표이사 사장과 영업·생산·마케팅본부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오로나민C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기원했다.

이원희(사진) 동아오츠카 사장은 "오로나민C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종합영양드링크로 국내 드링크 시장의 새로운 카테고리가 될 것"이라며 "최근 침체돼 있던 음료업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수한 영양성분을 자랑하는 오로나민C를 제 2의 포카리스웨트로 만들 것"이라고 선포했다.

오로나민C는 레몬 11개에 준하는 비타민C와 비타민 B2, B3, B6 필수아미노산 3종류를 함유하고 있어 하루에 필요한 종합 비타민 섭취가 가능하다. 벌꿀과 탄산수가 들어 있어 부드러운 상쾌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아오츠카는 국내 자체 생산라인을 통해 우수한 품질과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 CVS를 시작으로 대형마트·소매점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격은 1000원(120ml)

/[illegible]기자

"소중한 분께 감사의 마음 전하세요"

강강술래, 설 선물세트 반값 – 3만원~30만원대 한우·양념갈비 40종 선봬

설 명절이 얼마 앞으로 다가오면서 외식운영기업 강강술래가 27년의 노하우와 품격 정성을 담은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강강술래는 전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salle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3만원에서 30만원대까지 총 40여 종의 한우·양념갈비·가공식품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ml 5팩 15인분)는 3만8800원, 중용량세트(500ml 7팩 14인분) 3만60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세트(12봉) 5만1600원에 선보인다. 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세트(10마리)도 11만원에 내놓는다.

매장 인기메뉴인 한우양념불고기1호(1.5kg)는 6만원, 한우불고기2호(2.25kg) 8만원, 슬래양념1호(16대) 10만원, 슬래실속2호(슬래양념8대+한우불고기1.5kg)는 10만원,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대+한우불고기1.5kg) 14만원, 한우찜갈비1호(2.4kg/냉동) 19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한우정심1호(국거리 불고기·등심 각 0.7kg) 15만원, 한우명품1호(등심1.4kg, 안심0.7kg) 24만원 등 프리미엄 선물세트에는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스치환(MAP)' 포장을 도입했다.

또 모든 정육 선물세트는 열전도율이 낮아 보냉효과가 우수한 고급원단을 사용한 가방을 통해 신선하게 배송된다. /[illegible]

'서울메트로 아티스트' 찾아요

16일까지 접수 – 40팀 선발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가 오는 16일까지 지하철 예술무대에서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2015 서울메트로 아티스트'를 모집한다.

지하철 예술무대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서울메트로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으로 음악(노래, 연주)이나 댄스, 퍼포먼스 등 활동 장르나 나이·학력 등에 제한 없이 재능과 끼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는 약 4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답례로 월 1~5회의 상설 공연 기회가 주어지며 서울메트로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공연에도 초대된다. 또 공연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감상비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금함이 설치되며 연말 정기 평가에서 우수 아티스트로 선정되면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된다.

서울메트로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공연 동영상과 함께 이메일(radiart@bannam[illegible])로 접수하면 된다.

/[illegible]기자

동국제약, 리틀야구 대표팀 후원

야구용품·구급함 전달

동국제약(부회장 권기범)이 '한·미 친선 교류전'을 치르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리틀야구 국가대표팀에 야구용품과 구급함을 전달했다.

동국제약은 야구점퍼 등을 마련했으며 부상 시 치료를 위한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연고' 등 구급용품 20여 종을 구급함에 담았다.

김희섭 동국제약 전무는 "지난해 29년만에 리틀야구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등 리틀야구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야구 꿈나무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팀은 오는 23일까지 미국 LA와 샌디에고에서 세계 최강 미국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illegible]기자

'이상한 마법학교2' 성황리 막내려

관객 17만명 동원 – 가족 체험전 자리매김

EBS와 함께하는 교육마술 체험전 '이상한 마법학교 두번째 스토리'가 1기에 이어 누적관객 17만명을 동원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된 이상한 마법학교2는 교육과 마술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업그레이드 된 콘텐츠로 꾸며졌다. 특히 EBS 자문위원단의 검수를 거치며 검증된 다양한 교육 아이템으로 어린이는 물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였다.

실제로 체험전을 찾은 학부모들은 '신선하다', '재미있으면서도 교육적이다'라는 호평을 남겼으며 아이들도 '재미있고 신기하다', '또 오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현재 중국 시안을 비롯해 대만 등으로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백화점과 리조트 등의 초청 기획전시 요청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한 마법학교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사랑을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새로운 교육 콘텐츠와 신선한 마술로 색다른 체험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이래도 안 사?"… 이참에 미분양 털자

경품부터 할인·스킨십 마케팅까지 속속

설 이후 본격 분양 대전이 예고되면서 미분양 단지들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신규 물량이 쏟아질 경우 미분양 아파트를 향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그 이전 최대한 많이 판매하겠다는 의도다.

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미분양 아파트의 직·간접 할인 마케팅은 물론 집객을 위한 고가의 경품 이벤트가 풍성하다. 실속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다시 한 번 수요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려는 것이다.

롯데건설은 올 들어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 롯데캐슬 일반분양분 44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대의 할인분양을 실시한다. 계약금 1000만원, 면적에 따라 최대 22% 할인을 이 적용된다. 특히 전용면적 116㎡와 129㎡ 대형은 분양가의 50%를 2년간 납부 유예해준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대림원명 할인분양에 들어가면서 이 단지 거주민 중에서도 중형에서 대형으로 갈아타려는 분위기 있다"며 "전세난으로 목동지역 세입자들도 많이 찾는 편"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분양한 '인천 논현2차 푸르지오 시티'는 2가지 혜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익률에 민감한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감안해 2년간 임대료 지원 또는 공간 효용성을 높이는 실내인테리어 무상 시공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분양대행사 이삭디벨로퍼의 김 담당 부장은 "젊은 직장인들이 인테리어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파악해 임대료 지원 외 인테리어 무상 시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토지신탁이 충북 충주첨단산업단지에 분양 중인 '충주 코아루 퍼스트'는 계약자에게 봄철 레포츠시즌을 대비해 자전거를 경품으로 준다. 또 좋은 이웃을 추천한 계약자에게는 황금열쇠를 증정한다.

SK건설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꿈의숲 SK뷰'의 샘플하우스에서 관람 예약자를 대상으로 사주와 타로점을 봐주고 있다. 연초 운세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착안한 밀착 마케팅으로, 이달 15일까지 진행된다.

김윤배 SK건설 분양소장은 "완공된 아파트 내부를 재현해 놓은 샘플하우스의 특성상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하시는 수요자들이 많다"며 "때문에 작지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이 외에도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분양홍보관에 날개를 그려 넣거나 품귀현상을 빚었던 허니버터칩을 제공하는 등의 사소한 이벤트로 수요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선옥기자

SK건설이 서울 노원구 월계동 '꿈의숲 SK뷰' 분양홍보관 벽면에 날개 그림을 그려 넣어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 이벤트를 진행했다.

현대건설, 사우디서 송전선 공사 수주

현대건설이 최근 사우디 전력청에서 발주한 1억2600만 달러(약 1374억원) 규모의 380kV 송전선로 신규 건설공사 수주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프로젝트는 사우디 수도인 리야드 지역 내 총 연장 약 249km 송전선로의 건설, 설계·구매·시공 및 시운전을 포함한 일괄 도급 공사다. 공기는 24개월이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송·변전시장에서 약 70여 건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2월 현재 총 13건(14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사우디 정부는 2023년까지 40GW의 발전용량 증설과 송배전망 확충을 위해 약 16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이번에 수주한 공사를 계기로 향후 송·변전 공사 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사우디에서 수행 중인 유사 공사의 우수한 수행 능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작년 말 사우디 전력청으로부터 송전공사 수행부문에 대한 감사패를 수상하는 등 송·변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건설업체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GS건설 개최한 이색 미팅행사 북적 GS건설이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지난 주말 서울 종각역 그랑서울에서 개최한 '발렌타인데이 in 로맨틱 그랑서울' 대규모 미팅 이벤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행사 참가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GS건설 제공

대림산업, 폴리부텐 공장 증설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가 고반응성 폴리부텐 공장 증설에 나선다.

대림산업은 총 740억원을 투자해 2016년 11월까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존 고반응성 폴리부텐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연산 8만5000톤의 범용 폴리부텐 공장을 포함해 총 16만5000톤 규모의 폴리부텐을 생산한다. 이는 독일 바스프(14만톤 규모/년)와의 격차를 4만톤 이상 벌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폴리부텐은 주로 윤활유 첨가제와 연료 청정제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특히 고반응성 폴리부텐은 윤활유 제조 공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어 생산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윤활유 첨가제 및 연료 청정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고반응성 폴리부텐 시장은 연평균 약 4%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림산업 직원들이 여수 PB공장에서 증설공장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 회사는 1993년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범용 폴리부텐 상업생산에 성공했다. 2012년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고반응성 폴리부텐을 개발했고 단일 공장에서 범용 폴리부텐과 고반응성 폴리부텐을 병산(Swing Process)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했다.

/김학철기자

목동 '꿈틀'… 3.3㎡당 2000만원 회복

목동아파트 가격이 살아나고 있다. 2013년 3.3㎡ 당 2000만원 이하로 추락한 매매가격이 1년 만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목동 아파트 3.3㎡ 당 평균 매매가격은 2044만원으로 2013년에 저점을 기록한 1984만원 이후 회복 국면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목동은 2006년에 3.3㎡ 당 2536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말까지 계속 하락세를 보여왔다. 2013년 이후 리모델링·재건축 규제완화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기존 매매가격을 회복, 주가 상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재건축 연한 단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조합원 최대 3주택 분양 허용 등의 수요 정책들은 목동지역 노후아파트에 대한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9·1대책을 통해 재건축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면서 목동 일대의 신시가지 아파트들은 최대 수혜단지로 주목 받고 있다. 기존에는 2019~2022년에야 재건축추진이 가능했던 단지가 이르면 2016~2018년부터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천구도 곧 디가을 대규모 개발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시가지 아파트 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추진 의사와 사업방식(통합·개별)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주민 의사가 모두 취합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목동과 신정동 일대에 총 14개 단지 2만6635가구로 구성됐다. 1985년 준공된 1단지를 시작으로 1988년 준공된 14단지까지 순차적으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5층 이하의 저층단지를 포함하고 있어 재건축 수익성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학군에 따른 교육수요와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투자수요가 유입될 것"이라며 "매매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학철기자

“저, 한때 몸무게 세자릿 수”

친동생은 무뚝뚝…이종석으로 대리만족
모델 출신…SNS로 친근한 소통 노력중

'피노키오'로 뜬 배우 **윤균상**

배우 윤균상은 SBS 드라마 '피노키오'로 인기가 수직 상승했다. 그는 "이전과 많이 다르다"며 인기를 실감했다.

"예상도 못했는데 반응이 뜨거웠어요. 가족들이 싸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 뿌듯하죠. 아버지가 엄한 편인데 '아들 때문에 친구들한테 한턱 쐈다'고 말해 정말 기분 좋았어요.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 모든 게 풍성해진 기분이에요. 다만 소속사와 아버지 모두 겸손과 예의를 강조한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을 겁니다."

윤균상은 현 소속사 판타지오 엔터테인먼트와 3년째 함께 하고 있다.

"전역하고 연기를 처음 배웠어요. 연극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방송 쪽을 추천해줬죠. 지금 소속사 만났고 아직 계약 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웃음) 서로 맞춰가면서 믿음을 쌓고 있어요. 또 저희 회사엔 연기 선생님이 많죠. 특히 '힐러'에 출연 중인 김미경은 연기적, 인간적으로 조언을 많이 해줘 의지가 많이 됩니다."

배우가 되기 전 모델로 활동했다.

"제대하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고등학생 때 성적이 안 나왔고 뭘 하고 싶은 지 몰라 대학을 가지 않았죠. 전역하고 제2의 삶을 꿈꿔 모델 일을 시작했어요. 고등학생 때 몸무게가 세 자릿수였거든요. 살을 뺀 건 자신감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친구들이 다이어트를 한 제 모습을 보고 키도 크니까 모델을 해보라고 했어요. 당시 모델이 인기였거든요. 그때부터 서울로 와서 8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엔 이모, 고모 댁, 고시원에서 지냈죠."

'피노키오'에서 기하명(이종석 분)의 형 기재명 역을 맡아 존재감을 보였다. 실제 그는 이종석과 동갑인 남동생이 있다.

"제 동생은 무뚝뚝해요. 이종석과 성격이 전혀 다르죠. 이종석은 애교가 많고 남자가 봐도 예뻐요. 사근사근하기 쉽지 않은데 참 매력 있는 친구죠. 영화 '노브레싱'을 할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친동생에게 못 느꼈던 부분을 이종석을 통해 대리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웃음) 저는 이종석처럼 애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석과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아요."

자신을 무뚝뚝하다고 소개하지만 윤균상의 SNS를 보면 게재된 글과 사진에서 애교가 느껴진다.

"SNS를 보고 애교가 많은 줄 아는데요. SNS는 팬들이 처음 좋아해서 오는 곳이잖아요. 팬들이 귀엽게 말 걸어 주는데 딱딱하게 답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럽게 소통하려다 보니 '밥 먹었져용?'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SNS로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한계를 느낀 적이 없는 상남자이기도 하다.

"살면서 한계를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다이어트할 때 힘들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별 거 아니었죠. 연기적으로는 아직 한계를 느낄 만큼 경력이 많지 않아요. 주구장창하면 결국 목표를 이루는 거 같아요. 지금은 좋은 작품을 기다리고 있어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못하면 지적해주세요. 제가 배우로서 변화하는 걸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star bag

가사 담은 뮤직비디오 공개

걸그룹 에프엑스 멤버 엠버가 솔로 앨범 수록곡 '뷰티풀(Beautiful)'의 가사를 담은 뮤직비디오를 9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와 SM나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뷰티풀'은 어쿠스틱 기타 선율과 엠버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잘 어우러진 곡이다. 꿈을 펼치다 힘든 일을 겪어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는 스스로가 아름답다는 내용을 노래했다.

4년간 행적 담은 싱글 발표

그룹 블락비 멤버 **지코**가 두 번째 싱글 '웰던(Well Done)'을 오는 13일 발표한다. 데뷔 후 지금까지 4년 간의 행적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자전적인 내용을 담은 노래다. 지코는 블락비 리더로서 직접 작사·작곡은 물론 앨범 프로듀싱까지 맡으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웰던'을 통해서는 힙합 장르에 대한 애착과 래퍼로서 자신만의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단독 콘서트로 대륙 접수

가수 **김종국**은 오는 14일 중국 북경 '국도예술중심'에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한다. 엠반 웍스이엔티에 따르면 김종국의 중국 단독 콘서트는 티켓 예매 시작 2시간 만에 전석 매진됐다. 이번 콘서트에서 김종국은 발렌타인데이에 걸맞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김종국은 중국에서 진행된 인기투표에서 1억 2000천표를 얻는 등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하숙집 운영

신인 그룹 **소나무**가 SBS MTV '소나무의 펫하우스'를 통해 걸그룹 최초로 반려동물 하숙집을 운영한다. 소나무는 "반려동물을 만나기 전이지만 떨린다"며 "동물원, 애견카페를 방문해 강아지에 대해 공부했다"고 각오를 전했다. 방송은 내달 3일 오후 7시 예정이다.

3월 극장가 '장르 춘추전국시대'

코미디·사극·스릴러 등 잇따라 개봉

'헐머니'의 주연 배우 김수미

3월 한국영화 라인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새해 첫 스크린을 뜨겁게 달군 복고 열풍이 가고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봄과 함께 극장가를 찾는다.

다음달 5일에는 코미디 영화 '헐머니'가 개봉한다. '가문' 시리즈와 '마파도' 시리즈 등 한국 코미디 영화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펼쳤던 배우 김수미가 약 3년 만에 스크린에 컴백하는 작품이다.

영화는 욕을 소재로 한 서바이벌 오디션 '욕의 맛'을 통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김수미는 글쎄 아들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지옥에서 온 헐머니라는 닉네임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할머니 역할을 맡았다.

그는 "시나리오가 너무 약해 진짜 욕이 무엇인지 감독님에게 제대로 보여드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화는 욕만으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화제가 됐다.

신하균·장혁·강하늘 주연의 사극 영화 '순수의 시대'도 '헐머니'와 같은 다음달 5일 개봉한다. 조선 개국 7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왕자의 난'을 배경으로 서로 다른 욕망을 순수하게 좇는 세 남자의 이야기를 그렸다.

신하균은 이번 영화로 데뷔 16년 만에 처음으로 사극에 도전했다. 장혁은 비운의 왕자 이방원 역으로 야망 넘치는 캐릭터를 연기했다. 강하늘은 쾌락만 좇는 비열한 인물로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던졌다. 신예 여배우 강한나도 출연해 호흡을 함께 맞췄다.

다음달 12일에는 영화 '살인의뢰'가 개봉한다. 김상경·김성균·박성웅 주연의 범죄 스릴러다. 영화는 연쇄 살인마에게 가족을 잃고 남겨진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김상경과 김성균은 살인마에게 가족을 잃은 뒤 분노와 슬픔 속에서 삶을 살아온 베테랑 형사 태수와 평범한 가장 승현 역을 맡았다. 박성웅은 연쇄살인마 강천 역으로 이전과 또 다른 악역 연기를 펼쳤다.

이밖에도 김우빈·이준호·강하늘이 주연을 맡은 청춘영화 '스물'이 3월 중 개봉을 예고하고 있다. 다채로운 장르와 함께 연기파 배우들의 색다른 연기 변신이 3월 극장가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서태지 앙코르 콘서트 연다

가수 서태지가 전국 투어 콘서트의 열기를 다시 한 번 이어간다.

서태지컴퍼니는 오는 28일과 다음달 1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 경기장에서 2014-2015 서태지밴드 전국 투어 '콰이어트 나이트(Quiet Night)'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앙코르 공연은 지난 7일 부산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된 전국 투어 콘서트에 팬들이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태지는 지난해 12월 30, 31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광주·대구·부산 등을 돌며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했다. 그는 이번 투어에서 지난해 발표한 9집 '콰이어트 나이트' 수록곡 '소격동' '크리스말로윈' 등을 비롯해 서태지와 아이들의 히트곡 '필승' '마지막 축제' 등을 불러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티켓은 10일 오후 4시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김지민기자 languid@

'야구 여신' 최희 이번엔 '직딩 여신'

'투명인간'으로 예능감 발휘

방송인 최희가 직장인의 여신으로 변신한다.

최희는 오는 11일 밤 11시10분에 방송되는 KBS2 예능 프로그램 '투명인간'에 출연한다.

최근 진행된 '투명인간' 녹화에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희가 게스트로 참여했다. 녹화에 앞서 최희는 "직장생활을 약 4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직장인의 고충과 애환을 잘 헤아릴 수 있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번 녹화에서 최희는 다재다능한 끼와 예능감으로 현장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특유의 사랑스러운 눈웃음으로 "자기야"라고 외치며 여자친구로서의 면모를 선보여 남성 직장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투명인간'은 고되고 반복되는 일상과 업무에 지친 직장인을 위해 회사에서 재미있는 상황극을 펼쳐 특별한 웃음과 하루를 선사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강호동이 MC를 맡았으며 하하·김범수·정태호, 강남·박성진 등이 함께 출연한다.

/장병호기자

김소은·손호준 "열애? 그냥 친구"

배우 김소은과 손호준의 열애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김소은과 손호준의 열애설은 9일 모 온라인 매체의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특히 김소은이 MBC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 중이어서 논란이 됐다.

그러나 김소은 소속사 측에서는 "손호준과의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소은 소속사 판타지오는 "두 사람은 얼마 전 공식석상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뒤 성격이나 취향이 잘 맞아 급속도로 친해졌다. 남녀 사이로 친분을 다졌다기보다 친한 동료 사이로 자연스레 친분을 쌓아가던 것이 열애설로 불거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소은 본인 역시 '우리 결혼했습니다' 출연 중 본인이 가져야 할 의무, 책임감 등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만남에 대해 좀 더 조심성을 기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된 것 같다"며 "그 이상의 추측과 오해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병호기자

'쎄시봉' 순조로운 흥행 스타트

'국제시장' '강남 1970'에 이어 복고를 내세운 '쎄시봉'이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쎄시봉'은 개봉 첫 주말인 지난 6일 금요일부터 8일 일요일까지 총 관객수 53만4687명을 모아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64만2289명이다.

2위는 '빅 히어로'로 주말 3일 동안 35만3019명의 관객을 모았다. 누적 관객수는 225만703명이다. 3위는 '국제시장'이 차지했다. /장병호기자

'멋진 악몽' 엄정화·송승헌 부부 됐다

크랭크업…상반기 개봉

엄정화, 송승헌 주연의 영화 '멋진 악몽'(가제, 감독 강효진)이 지난 2일 모든 촬영을 마치고 크랭크업했다.

'멋진 악몽'은 외모, 재력, 능력 모든 것을 갖춘 잘 나가는 싱글 변호사 연우(엄정화)가 갑작스런 사고 후 상상도 못해본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게 되면서 공무원 성환(송승헌)을 만나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코미디 영화다.

지난 2일 진행된 마지막 촬영은 연우와 성환, 그리고 둘의 딸 하늘(서신애)의 장면으로 유쾌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촬영을 마친 뒤 엄정화는 "촬영장에서 살다시피 한 것 같다. 그래서 더 애착이 가고 스태프들 기억이 많이 남는다. 함께 한 배우들과도 좋은 기회가 생기면 얼마든지 또 만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승헌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캐릭터를 연기했다. 생활에 밀착된 빈틈이 많지만 가슴 따뜻한 인물"이라며 "연기하면서 고민도 많았지만 지금은 성환 역을 맡길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웃음과 감동, 여운을 줄 수 있는 영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멋진 악몽'은 후반 작업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사랑에
빠진
나는
호구
입니다
오늘 밤 11시
tvN
2화 방송
매주
[월-화]
방송
tvN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
유이 · 최우식 · 임슬옹 · 이수경

9일(한국시간)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퓨어실크-바하마 클래식에서 연장전 끝 우승한 김세영이 주먹을 불끈 쥐고 기뻐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김세영, 역시 '역전의 여왕'

LPGA 바하마 클래식 연장접전 끝 정상 · "태권도로 체력·정신력 무장 도움"

9일(한국시간) 막을 내린 퓨어실크-바하마 클래식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한 김세영(22·미래에셋)은 프로 무대에서 모든 우승을 짜릿한 역전승으로 장식한 '역전의 여왕'이다.

중학교 2학년이던 2006년 한국이자이미주여선수권대회에서 최연소로 우승해 주목받은 그는 2011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정규투어에 입성한 이후 2013년부터 두 시즌 동안 5승을 올리며 정상급 선수로 우뚝 섰다.

2013년 4월 롯데마트 여자오픈 마지막 홀에서 이글에 성공하며 통산 첫 승을 역전승으로 장식해 이때부터 '역전의 여왕'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후 한화금융 클래식과 메이저대회 KLPGA 챔피언십에서도 역전극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듬해에도 그의 '역전 본능'은 이어져 지난해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MBN 여자오픈에서도 역전 우승으로 2승을 추가했다. LPGA 투어는 지난해 12월 퀄리파잉스쿨을 통과해 올 시즌 출전권을 얻었다.

김세영은 태권도 관장인 아버지 김정일(53) 씨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 태권도를 배우며 다진 기초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이 역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번 퓨어실크-바하마 LPGA 클래식에서도 김세영은 마지막 날 5타를 줄이는 뒷심을 휘둘러 합계 14언더파 278타로 연장전에 들어갔다. 이어 유선영(29·JDX), 아리야 쭈타누깐(태국)과 18번 홀(파5)에서 벌인 연장전에서 그는 버디를 낚아 시즌 두 번째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한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는 공동 7위(11언더파 281타)로 마쳐 공동 5위(12언더파 280타)인 박인비보다 뒤졌지만 세계랭킹 1위는 지킬 수 있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개막부터 내리 2연승 '코리안 돌풍'

2015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초반부터 '코리안 돌풍'이 거세다.

한국 선수들은 지난주 시즌 개막전인 코츠 챔피언십에서 최나연이 오랜만에 정상에 오른데 이어 9일 끝난 퓨어실크-바하마 클래식에서는 루키 김세영이 우승했다.

1998년 박세리가 LPGA 투어에 본격 진출한 이후 한국 선수들은 미국 무대에서 명위를 떨쳐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외 동포인 미셸 위(미국 2승), 리디아 고(뉴질랜드 3승), 크리스티나 김(미국 1승)까지 6승을 포함해 무려 16승을 올렸다. 한국 국적 선수로만 따진다면 2006년 11승이 최고 성적이다.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한국 국적 선수만으로도 2006년 이후 최고의 승수를 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베테랑 최나연이 올 시즌 첫 승 스타트를 끊었고,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김세영이 일찌감치 우승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이다.

한국 무대 상금왕 출신 장하나도 개막전인 코츠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세계랭킹 2위 박인비 역시 건재하다.

이 외에 이번 시즌 최고의 기대주 김효주와 유소연, 백미정, 백규정도 우승을 노리고 있다. /김민준기자

코트디부아르 네이션스컵 승부차기 끝 우승 코트디부아르가 9일(현지시간) 적도기니의 바타에서 열린 가나와의 2015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9-8로 꺾고 우승했다. 1992년 이후 통산 두 번째 우승이다. 공격수 윌프레드 보니(맨체스터 시티)가 부바카르 배리를 무등 태우고 기뻐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박인비 '1000만달러 여인'

박세리 이어 국내 두번째

'골프 여왕' 박인비(27·KB금융그룹·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상금 1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박인비는 9일(한국시간) 바하마의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에서 막을 내린 퓨어실크-바하마 LPGA 클래식을 공동 5위(12언더파 280타)로 마쳤다. 이 대회 전까지 통산 997만1418 달러의 상금을 쌓은 박인비는 바하마 클래식에서 4만9171 달러를 더해 통산 상금 1002만596 달러(약 110억원)를 기록했다.

한국 선수가 LPGA 투어에서 통산 상금 10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박세리(1252만7577달러)에 이어 박인비가 두 번째다.

박세리는 통산 상금 7위에 올라 있으며, 전체 1위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2257만3192 달러)이다. /김민준기자

지동원 3경기 연속 선발

슈틸리케 감독에 눈도장

한국 축구 대표팀에서 활약하던 스트라이커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사진)이 벤치를 벗어나 또 풀타임을 뛰었다.

지동원은 9일(한국시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보제나우 슈타디온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와의 2014-2015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20라운드 홈경기에 선발로 나와 풀타임 활약했다. 골이나 도움을 올리지 못했지만 활발한 몸놀림으로 공수 지원을 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프랑크푸르트와 2-2로 비겼다.

지동원은 최근 도르트문트에서 이적하고 나서 3경기 연속으로 그라운드를 밟고 있다. 지난 5일 도르트문트와의 원정경기에 이어 두 경기 연속으로 풀타임 활약이다.

지동원이 계속 출전하면서 공격 포인트까지 쌓는다면 슈틸리케호의 주전 공격수 경쟁에서 유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민준기자

KCC 허재 감독 사퇴

프로농구 전주 KCC 허재(50·사진) 감독이 성적부진으로 물러났다.

KCC는 허 감독이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9일 밝혔다. KCC는 코치이던 추승균 감독대행 체제로 남은 시즌을 치른다.

스타 플레이어 출신인 허 감독은 2005년부터 KCC 지휘봉을 잡았다. 10시즌 동안 KCC에 두 번의 챔피언결정전 우승과 한 번의 준우승을 안기며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최근 3시즌 동안 성적이 부진했다. /김민준기자

추운 만큼 잘 익어가는 황태 기온이 뚝 떨어진 9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황태마을 덕장에 걸린 황태들이 익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택시에 '무시동 난방기'

고온 엔진 냉각수 활용 원리… 연 1300억 절감

서울시가 시동을 걸지 않고도 난방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시내 택시에 설치, 대기오염을 줄이겠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택시 1대가 하루 운행 시간 중 손님을 기다리며 정차하는 시간은 평균 4시간 이상이다.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을 위해 시동을 켠 채 공회전을 하기 때문이다.

난방은 고온의 엔진 냉각수의 열을 자동차 내부의 히터코어로 순환시키면서 공조 팬을 작동하면 따뜻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원리로 엔진이 늘 가동돼야 한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전체의 63%를 차지해 온실가스 다량 배출의 주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소비되는 연료는 국가적인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시는 자동차 운행 때 90도까지 올라간 냉각수의 열에너지를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난방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제작했다.

지난해 12월 한달간 택시 1대에 이 장치를 부착, 시동을 끈 후 90도로 상승한 냉각수를 순환시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36.5도까지 내려가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3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장치를 총 99.2시간 사용한 결과 13만1860원(휘발유 118.8ℓ)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6kg 줄일 수 있었다.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시내 택시 43대에 장치를 추가로 부착, 4월 15일까지 효과를 분석한 후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에는 7만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며 모든 택시에 장치를 부착해 하루 4시간씩 6개월을 사용하면 총 671억원(연 1342억원)의 연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조현정기자

'사고 감소 효과' 회전교차로 대폭 늘린다

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회전교차로 1173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회전교차로 확대 설치는 교차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의 44%가 교차로에서 발생한다. 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결과 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2012년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85곳은 2011년과 2013년을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빈도가 39%, 사상자 수가 45%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교통사고 예방 목적으로 전국에 회전교차로 419곳을 설치했다.

/조현정기자

3대 연금 20년 납입해도…

"실제 받는 금액 은퇴 전 소득 38% 불과"

우리나라 남성이 3대 연금인 국민·퇴직·사적연금에 모두 가입해 20년간 납입해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은퇴 전 소득의 38%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신승희 전문연구원 등이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에 실은 '생존기간을 고려한 생애소득대체율의 추정' 논문에 따르면 3대 연금에 20년 동안 가입한 남자의 생애소득대체율은 38.3%, 여자의 생애소득대체율은 41.1%였다.

생애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을 생존기간의 확률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평균을 낸 지표인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보험료율은 현행 9%와 8.3%가 적용됐으며 개인연금 보험료율은 분석 자료가 따로 없어 국민연금과 같은 9%로 가정했다.

그 결과 3대 연금에 20년 가입했다면 60세에 남성이 평균 108만원, 여성이 평균 67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또 남자와 여자의 연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녀 간의 소득에 차이가 있고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 연금에 40년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생애소득대체율은 남성이 77.4%, 여성이 79.2%로 크게 오른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40년간 3대 연금에 모두 가입하기는 쉽지 않다.

신 연구원은 "개인연금 없이 20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가입만을 고려하면 남성과 여성의 생애소득대체율은 28.4%와 33.1% 수준까지 떨어진다"며 "은퇴를 설계할 때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연금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생애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입춘 지났는데 눈이라니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을 찾은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내리는 눈을 맞으며 걷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 "대북전단 살포 막지 말아야"

주민 안전 외면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내부에서도 북한의 포격 위협에 시달리는 접경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번 결정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의견 표명안을 의결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인권위는 의견 표명안에서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세계인권선언(UDHR)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전단이 이에 대해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과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인권위 내부에서도 "실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포격이 있었는데도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현정기자 /연합

인사

■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지방건설감사단장 박병익 ▲방산비리특별감사단 감사부단장 이병하 ▲심사관리관 이남광 ▲감사원(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정상우 ▲감사원(국회사무처 파견) 송윤근

◇3급 승진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장 김성미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염종석 ▲전략감사단 제1과장 이수연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장 박민기 ▲국방감사단 제2과장 김진석

■ 법제처

◇과장급 전보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심현림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원장 이일식 ▲바이오독성분석본부장 김승일 ▲환경·소재분석본부장 이기욱 ▲연구장비개발사업단장 강된석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기획·국제협력팀장 고제성 ▲고용서비스진흥센터장 이석재 ▲정보화운영팀장 김영구 ▲워크넷팀장 김영수 ▲고용보험팀장 권문형 ▲능력개발팀장 박규수 ▲외국인력팀장 임종호 ▲고객감동팀장 탁숙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보 ▲대외협력처장 정종현 ▲경영기획처장 최종수 ▲환경안전처장 이기훈 ▲미래전략홍보실장 이능재

◇교육파견 ▲서울대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1급 이완섭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조주형

■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이재관

◇임원 ▲김영재 e비즈니스팀장 ▲정구희 BT팀장

◇파트장 ▲서미숙 리뉴서당2파트장 ▲서경희 투자상담2파트장 ▲김동욱 e비즈니스기획파트장 ▲한상욱 IT전략파트장 ▲정준 BT서비스운영파트장

◇지점장 발령 ▲강도원 부천지점장 ▲서용원 금융플라자GFC지점장 ▲이종선 이촌지점장

■ 특허청

◇고위공무원 전보 ▲산업재산정보국장 최규완 ▲정보고객지원국장 장완호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상철

◇과장급 승진 ▲특허심판원 심판관 전 [illegible] ▲정인 [illegible] ▲김구현 ▲이익진

■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교육 파견 ▲행정자치부 교육원 최준석

◇4급 과장급 교육 파견 ▲세종연구소 장관익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파견 ▲특구보안과장 박준형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장 김종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이성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이경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박덕호

부고

▲김광우씨 별세, 한준오(사장)·준욱(신한금융투자 이사)씨 모친상, 이민기(이건제대과장)씨 장모상 = 8일 별세,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10일. 053-620-4870

▲손국호씨 별세, 류현순(KBS 전 부사장)씨 시부상 = 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 02-2227-7556

▲신영애씨 별세, 김의헌(대한지적공사 과장)씨 모친상, 하철(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기획실 실장)씨 장모상 = 9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서북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8시 02-354-4444

▲박소순씨 별세, 이규진(안산시의회 환경미화과) 보숙(대신증권 부천지점 대리)씨 모친상, 김동호(의정부지방검찰청) 김석구(자영업) 박용돈(자영업) 이윤외(노루페인트 공무과)·김금식(우림스코퍼레이션 신무씨) 장모상 = 8일 오후 11시 20분 부천세종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1일 오전 8시 032-340-1154

"LG회장집 앞 시위 금지"

가사도우미가 가처분

LG유플러스와 협력업체 근로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장기 파업 중인 LG유플러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LG회장 집 앞에서 한달 넘게 매일 집회를 열자 LG유플러스 측과 가사도우미 등이 법원에 업무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인근 주민들도 집회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한남동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등 6명은 희망연대노조와 이 노조의 LG유플러스 지부장 등 3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30일 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금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이들은 "확성기 소음과 탐조등 불빛 탓에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며 "집에서 30m 이내에 2명 이상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LG와 LG유플러스, 구본무 회장을 언급한 구호를 외치지 못하게 해달라"며 이들 위반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구 회장 자택의 입주 주간 가사도우미 2명과 주택 관리용 교대근무자 3명, 구 회장 부인의 운전기사로 LG 계열사 사옥을 관리하는 인력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이다. 소송 비용은 LG유플러스에서 부담한다.

/연합뉴스

LG그룹 관계자는 "회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매일 낮과 밤에 도를 넘어선 시위가 지속돼 집에 상주하는 가사도우미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LG유플러스가 소송을 낼 때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회로 인해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등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부 출입시 이들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LG 측은 노조원들의 주야 집회로 인해 인근 일부 주민들도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에 고용된 인터넷·IPTV 설치기사들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는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작년 11월 파업을 시작했으며 파업이 길어지면서 작년 12월 19일부터 매일 회장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삼척 산불 진화작업 재개 산림당국이 8일 오후 강원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작업을 9일 오전부터 재개했다. 헬기 9대와 공무원은 물론 군병력 등도 투입돼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

AI 확산 방지에 총력 서울 중랑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가 확진된 가운데 9일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이 임시휴장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고법 "원세훈, 대선 개입했다"

징역 3년에 법정 구속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 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 활동에 운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조현정기자

/연합뉴스

철원서 구제역 의심 농장 발생

세종 농장주 이동 제한 중 빈출 – 돼지 610마리 살처분

강원도는 지난 7일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의 한 농장과 역학 관계에 있는 철원군의 한 돼지농장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 돼지농장이 세종시의 구제역 발생 인근 농장으로부터 새끼돼지 260마리를 들여다 키운 사실을 8일 확인,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사육 중인 610마리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다.

돼지는 호기성 호열 미생물을 이용해 퇴비화 방식으로 농장 내에 매몰했으며 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농장주 등 관계인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했다.

현장에 투입된 가축 전문 방역관은 임상 관찰로 해당 농가의 구제역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검사 대상물 등을 채취해 농림식품검역본부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철원 농가에 돼지를 반출한 세종시 농장주는 인근 농가에서 이미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등을 외부로 실어 낼 수 없는 이동 제한 중인 농가이다.

이 농가는 돼지 1000마리를 사육하던 중 6일부터 새끼 돼지가 폐사하고 어미돼지 47마리도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여 7일 오후 의심 신고를 했고 8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농장주는 의심 신고 전인 같은 날 오전 260마리를 철원으로 반출했다.

세종시는 이동 제한 중에 돼지를 빈출한 세종시 농장주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이동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감염 사실을 알고도 돼지를 철원 농장에 팔았는지와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현정기자 /연합

경찰, 조합장선거 대비 24시간 대응반 가동

경찰청은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4시간 대응반'을 가동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를 위해 작년 12월 11일부터 각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의 인력을 기존 1195명에서 1381명으로 확대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후보자 등문회,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금품 살포·향응 제공 등 돈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할 방침이다. 선거 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장한다.

/조현정기자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
17.5도